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되어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 이제 사도행전은 그가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사도들의 활동에 관한 책 이라기 보다는 복음이 증거되고 수용되어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들에 관한 책이라 볼 수 있다.

1. 사도행전의 구조와 요점

1 예루살렘 (1:1-6:7)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1) 성령강림(1-2 장) 예수님 승천때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함	2) 전도와 박해(3:1-4:31)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함	3) 초대 교회(4:32-6:7)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재물을 통용하고,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증거함
2 복음 확산 (6:8-12:24)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신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함		
	1) 스테반의 순교(6:8-8:3)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음	2) 유대와 사마리아(8:4-9:31) 박해를 피해 신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전도하고, 핍박자 사울이 회심함	3) 이방인의 구원(9:32-12:24) 고넬료 가정을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의 교회가 세워짐
3 이방 선교 (12:25-21:16)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 증거		
	1) 1 차 여행(12:25-15:35)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1 차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	2) 2 차 여행(15:36-18:22)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2 차 전도여행을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며 전도	3) 3 차 여행(18:23-21:16) 바울이 3 차 전도여행을 떠나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마게도냐와 헬라에서 전도 후 예루살렘으로 감
4 최후 증거 (21:17-28 장)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예수를 증거하고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가서도 증거		
	1) 예루살렘(21:17-23:11)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함	2) 가이사랴(23:12-26 장)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심문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3) 로마(27-28 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증거

2. 사도행전의 주제들

- 1)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성령의 사역이 주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명하셨고,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이것을 요엘 2 장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였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증거활동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로 행해진 것을 누가는 고백한다.

- 2)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체로 제자들(사도들)을 사용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안수하여 믿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사도들과 신자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로 계속하게 되었다.
- 3) 기독교 신앙이 구약 신앙의 연장임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24 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고난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했다고 설명하셨다. 사도행전에서도 대부분의 복음사건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소개된다 (가룟유다의 죽음과 사도의 교체 1:16-20, 성령을 부어주심 2:16-21,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3:18, 8:32-33; 13:27-37, 부활하심 2:24-31; 26:23, 승천과 하늘에 계심 2:35; 3:21 등).

*** 오순절 성령강림(2:1-13)**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성령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났다.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일곱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즉 50 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기도 하다. 이것은 마치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함을 알리는 것과 같다.

*** 사도행전의 지역적 관심**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설교 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 지역적 구조를 그 틀로 사용하였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눅 4:14-9:50),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9:51-19:27)에 이어 예루살렘에서(19:28-24:53) 활동하신 예수님을 소개한다. 복음사건이 마무리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행 1:4),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진행될 것을 예고하시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 예고하셨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지 역	본 문
서론	1:1-26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전파	2:1-7:60
유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에서의 복음전파	8:1-12:25
터키 지역에서의 복음전파	13:11-15:35
그리스 지역에서의 복음전파	15:36-21:26
로마에서의 복음전파	21:27-28:31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이 3 차 전도여행 끝 무렵(56/57 년)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때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서바나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고자 방문하기 위해 미리 편지를 썼다(롬 1:9-15, 15:22-29). 이 편지의 목적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신뢰하여 그의 사역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1. 로마서의 구조와 요점

1 칭의 (1-4 장)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곧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1) 머리말(1:1-17) 바울은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고 로마 방문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다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	2) 하나님의 진노(1:18-3:18)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3) 하나님의 의(3:19-4 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새 생명 (5-8 장)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1) 화목(5 장)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림	2) 해방(6-7 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새 생명을 얻는다.	3) 성령(8 장)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3 이스라엘 (9-11 장)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를 거부하여 버림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		
	1) 선택(9 장)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택함을 받는다.	2) 불순종(10 장)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3) 구원(11 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4 새 생활 (12-16 장)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개인 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1) 개인적 변화(12-13 장)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	2) 공동체 연합(14:1-15:13)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돕고 수용하여 연합해야 한다.	3) 마무리(15:14-16 장)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역 계획을 설명하며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 부탁함

2. 로마서의 주제들

1) 이신칭의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로마서 전체를 통합시키는 중심 주제로 본다. 여기서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의를 인간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선물로 제공하는 의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구원 행위로서의 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 혹은 의의 방편이 되는 믿음의 기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화목적 죽음이다 (롬 3:21-26, 4:25, 5:6-21).

그렇다고 로마서에 나타난 '의'가 결코 신자의 삶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는 로마서의 주제구절이라 할 수 있는 1:16-17 에서 의를 구원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4 의 인용에서 드러난다. 또한 6 장에서 신자를 한 때 죄의 종 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 된 자로 규정하면서 죄와 의를 다 같이 인간을 지배하는 주권적인 힘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8 장에서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를 통하여 성령께서 신자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12 장 이하에서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임을 보여준다.

2) 복음

바울은 1:16 이하, 3:21-26 에서 복음을 '복음/예수 그리스도 - 믿음 -구원/의/영광' 으로 표현한다.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의와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의롭다는 인정과 구원과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성으로 '마음의 율법'을 따를 수 있었지만(2:14) 따르지 않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행하지 않았다(2:17-24). 이 율법들은 그들을 죄와 진노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상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죄와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3) <복음-믿음-의> vs <율법-행위-죄>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믿음-의'의 도식을 사용하고, 그에 상반되는 도식으로 '율법-행위-죄'의 도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율법-행위-죄'의 도식은 원래의 '율법-행위-의'의 도식을 바울이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언약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계속해서 의로운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죄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3:19,28; 9:31). 이로 인해서 원래는 '율법-행하지 않음-죄'의 도식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했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에 결국 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율법-행위-죄'의 도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울에게 믿음과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은 행위로 이어지고,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율법 준수의 행위는 그들이 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과 행위가 '죄'와 한 테두리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반되는 도식과 관련하여서, 죄와 의는 대립선상에 놓아야 하지만, 율법과 복음 및 행위와 믿음은 각각 적합한 선상에 놓으려고 의식적으로 애써야 한다.

*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한 칭의적 구원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성화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은 행함의 믿음이 강조되는 영역이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 암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성화의 핵심은 변화이고,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이고, 의식의 변화를 말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갈라디아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처럼 되게 하려는 잘못을 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된 복음을 가르친다.

1. 갈라디아서의 구조와 요점

1 참된복음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화 하려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1) 다른 복음(1-2 장)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한다.	2) 율법과 믿음(3-4 장) 성도가 의롭다 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온 것이다.	3) 성령의 열매(5-6 장) 성령을 받았으니 육체의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갈라디아서의 주제들

1) 칭의론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율법이 규정한 행위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2:16, 3:22).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보인 그리스도의 신실성에 의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는 이방인도 율법준수가 아닌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5:4) 율법을 칭의의 근거로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2:16, 3:14) 의지하라고 주장한다.

2) 복음과 율법과 유대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 그들은 율법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열정이 율법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과 율법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3) 갈라디아서의 언약신학(4:21-31)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논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의 언약신학이다. 바울은 구약에 두 언약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모세의 언약은 사람이 얼마나 악하며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언약이다.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선과 같아서 만일 그들이 그 선을 벗어나면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이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율법의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였다.

*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동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가, 곧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제시 하는데, 이 가르침은 삶의 문제를 동반하며,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성취를 요청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흩어진 열두 지파'(약 1:1), 곧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믿음을 가진 것을 전제하고 있기에, 믿음이나 구원의 원리보다는, 믿는 자의 행실에 대해 권고를 한다.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므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다.

1. 야고보서의 구조와 요점

1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		
	1) 믿음과 행함(1 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거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므로 바른 실천을 권고함	2) 행함의 실제(2:1-4:12) 성도는 악자를 돌보고 말에 주의하는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3) 종말 신앙(4:13-5 장) 사업과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도 종말을 바라보며 참고 기도해야한다.

2. 야고보서의 주제들

1) 믿음과 행함의 관계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행함이 결여된 신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신칭의 교리를 '칭의와 성화의 균형잡힌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성화와 선행에 대한 강조는 소홀히 하고 칭의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 세례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마 3:8) 했고,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고 명령하셨다. 이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표가 선한 삶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상급논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야고보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상급을 위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의 삶은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2) 온전함

야고보는 성도의 온전함이야말로 세상과 구분되는 본질적 특징이라고 보았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시험도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다(1:4).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다(1:25). 그가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도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해지기 때문이다(2:22).

(1) 온전함과 시험

야고보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시련을 어떻게 대처할 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한 행실을 낳는다. 하지만 누구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험을 참는 자, 즉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2)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 1:25 에서 말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신 율법을 뜻한다. 마태복음 5:21-48 에서 예수님은 십계명과 구약 율법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심화, 폐지, 혹은 대체하신다. 즉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 온전한 율법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말씀을 유심히 보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1:25).

(3) 온전함과 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특히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말조심, 침묵은 절제된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여겨진다. 야고보서에서도 경건과 침묵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1:26). 먼저 야고보서는 혀의 힘에 대해 강조한다. 혀는 큰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와 같다(3:4).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3:5) 비록 혀가 인간의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힘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서 혀로 짓는 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며, 혀의 무서운 죄악의 힘에 비해 인간이 무능력함을 말한다(3:7, 8). 그렇기에 저자는 혀의 권세에 비추어 볼 때 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3) 온전함과 산상수훈

야고보서의 온전함은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의해 온전해진 율법, 그것은 산상수훈이 말하는 바다. 야고보서와 산상수훈 간의 병행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	야고보서	마태복음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1:2	5:11-12
온전하라	1:4; 2:22	5:48

믿음으로 구하라	1:6	7:7
재물은 풀과 같다	1:10	6:30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1:17	7:11
화내지 말라	1:19-20	5:22
듣음과 행함	1:22-23	7:24-26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2:5	5:3, 5
율법 전체를 행하라	2:10	5:18-19
살인과 간음	2:11	5:21-22, 27-28
금술을 행하라	2:13	5:7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3:12	7:16-18
화평케 하는 자	3:18	5:9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4:4	6:24
마음이 청결함	4:8	5:8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높이심	4:10	5:5
판단하지 말라	4:11; 5:9	7:1-2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4:13-14	6:34
좀 먹는 재물	5:2-3	6:19-21
모범이 되는 선지자	5:10	5:11-12
맹세하지 말라	5:12	5:34-37